



## <플라톤이 지배한 서구문화사구조>

세계문화예술사 혹은 역사와 지성사가 진행된 흐름(서구문화를 중심으로)

1부/ 플라톤주의가 서구의 정신적 기둥으로 성장하기까지  
왜 사람들은 플라톤주의를 포기하지 못하는가?

### 1) 중요한 세계를 엿보는 3가지 방법

가장 중요한 실수를 하는 것은 바로  
첫번째 a.인식적 개념의 세계로만 세상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 a. 인식적 개념의 세계
- b. 현상적 세계
- c. 실재적 세계
- d. 75개의 눈과 의식. 시각이 펼쳐진 세계란?

### 2) 플라톤사상의 흐름과 세계사

- a. 클래식시대(480-330 B.C) 의 플라톤(Platon ; 기원전 427~347)의 사상의 실상
- b. 아카데미창설부터 신플라톤주의 아카데미 패쇄(529 AD)되기까지
- c. 기독교 신앙우위에 의해 말살된 플라톤주의가 기독교 사상의 기초사상으로 부활
- d. 다시 정치, 문화사상, 엘리트주의 중심사상으로 자리잡기까지의 전개과정

2부/ 20세기 니체부터 들뢰즈까지 플라톤주의와 반 플라톤주의 대립.  
이 싸움은 fundamentalist, 엘리트주의와 보통 시민과의 전쟁이다.

### 3) 왜 플라톤인가?

- a. 800년 만에 메디치 가문에서 플라톤을 끄집어 내 학당을 세운 까닭 (건고한 국가건설을 위한 모색----)국가론
- b. 플라톤 미의식이 중심구조로 자리잡은 것은 르네상스시대부터,
- c. 기독교사상과의 결합으로 아카데미미술교육사상과 서구의 엘리트 교육기관의 중심의식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 4) 플라톤주의자는 누구인가?

- a. 이원적세계론자.
- b. 본질주의자(fundamentalist or Essentialist)
- c. 묵시적 계급 옹호론자, 엘리트주의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관 (동굴속의 세계)

세계를 해석하고  
세계를 운용하는 방법,  
이데아의 세계와





본질주의 토마스 아퀴나스 <형이상학> 7권 정의 "그것은 어떤 것이 존재로 있었던 것이 계속 있는 것'본질 essence

이데아 도입의 전략성

1)이데아 본으로써(훌륭한 상태로 본보기, 모범)

변화되지 않는 것(신)신을 본받은 인간, 변화를 싫어하는 것도 여기서 출발, 훌륭한 상태-->나쁜 상태, 본질적 기능

2)실재로서의 이데아,

완벽하게 있는 것..인 것 자체에 대한 인식, 철학의 본령(즉 그리스의 철학은 신이 준 질서를 깨닫는 것)

3) 본과 실재..이 두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데아

가장 훌륭한 상태--->불변성을 본으로 삼는다.

국가 1권/ 좋음의 이데아 존재론적 인식론적 체계를 완성

소크라테스는 좋음의 이데아를 가장 중요한 최고의 배움이라고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좋음을 빠트린 채 그것을 소유한 들 아무 소용이 없다--- 좋음=올바르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해 3가지 비유

1)태양, 빛이 비치이는 곳에서만 볼 수있다. 존재는 빛으로 드러난다. 즉 태양은 빛으로 보이게 하고 보이는 것들을 생성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듯이 좋음의 이데아는 다른 이데아를 존재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좋음을 설정하기 위해서 좋음을 설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나쁨을 설명해야만 한다.

여기서 설정하는 적대의식이 증오를 분출하게 하고 결국은 전재를 유도하고 약탈을 합리화 시키고 나쁜 종자들에 대한 학대를 정당화 시키는 것이다.

2) 선분으로 드러나는 가시계, 가시계와 태양은 사실,,

아마르나 시대에 아멘호테프에 예견되었던 것

플라톤의 국가를 통해 살펴본 본질주의..가시계의 것들(태양을 통해 볼 수있는 것)은 1) 실물(믿음 확산)과 영상(상상물) 으로 나누어지고 가지계의 것(지성에 의해서 알 수있는 것) 1) 실물과 영상(추론에 의해서 알 수있는 것, 지성의 앎) 추론적 사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먼 세계에 대한 것을 인정

3) 동굴

죄수들은 포박당한 채로 동굴 벽에 비친 실물들의 그림자만 보고 있는 상태.

동굴 밖에 가시적 세계가 있다.

죄수들은 평생 실물의 그림자만 보고 논한다

소크라테스는 강제적 배움의 상황을 예시--> 만일 죄수를 풀어주고 그들에게 강제로

불빛을 보도록 했을 때, 세상으로 억지로 끌고가서 햇빛 속으로 끌어낸다면 그의 눈은 멀어서 아무 것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혼의 전환> 앎을 가지계로 인도한다는 것

변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태어난다는 논리...나쁜 것은 좋은 것을 위해서 존재-->노예적 계급성이 발생하고 착취논리..선택이라는 이름에서 자행.

엘리트주의가 나쁜 것은 많은 사람이 오직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1등을 위해 나머지가 존재한다.



## 플라톤의 생애와 사회사상

플라톤(Platon ; 기원전 427~347)은 기원전 427년에 아테네의 명문 귀족의 집에서 출생하여 20세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어 그에게서 큰 감화를 받았다. 처음에는 정치가를 희망했지만, 혼란에 빠진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위해 희생된 스승 소크라테스의 사망을 목격한 후 뜻을 바꾸어 철학자로서의 일생을 보내게 되었다.

철학자로서 플라톤의 노력은 아테네의 운명에 불길함을 던져준 소크라테스의 실패를 연구하고 그것을 시정할 방법을 찾는데 모아졌다. 스승의 처형 후 잠시 메가라에 피난갔다가 아테네로 돌아와서 약간의 대화편을 집필했다. 그 후 남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등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혔으며, 기원전 387년 아테네의 서북쪽에 아카데메이아(Akademeia)라는 학교를 창립했다.

The Academy ([Ancient Greek](#): Ἀκαδημία) was founded by [Plato](#) (428/427 BC – 348/347 BC) in ca. 387 BC in [Athens](#). [Aristotle](#) (384 BC – 322 BC) studied there for twenty years (367 BC – 347 BC) before founding his own school, the [Lyceum](#). The Academy persisted throughout the [Hellenistic period](#) as a [skeptical](#) school, until coming to an end after the death of [Philo of Larissa](#) in 83 BC.

Although philosophers continued to teach Plato's philosophy in Athens during the [Roman era](#), it was not until AD 410 that a revived Academy was re-established as a center for [Neoplatonism](#), persisting until 529 AD when it was finally closed down by [Justinian I](#).

기원전 399~365년에 다시 시칠리아에 가서 젊은 군주 디오니시오스 2세(Dionysios II ; 기원전 367~398집정)를 도와서 어느 정도 자기의 정치사상에 부합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아테네로 돌아왔다. 기원전 361~360년 세 번째로 시칠리아에 가서 친구인 디온과 그의 조카 디오니시오스 2세와의 싸움을 조정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 후 기원전 347년 사망할 때까지 아카데메이아에서 강의와 저작의 집필에 전념하였다.

플라톤은 정치가로서 활동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그 후에도 정치에 대해 계속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제2회 및 제3회의 시칠리아 여행에서 일시적이거나 실제 정치에 관계했을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아의 교육을 통해서 입법자 또는 정치가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는 그 시대의 정치에 대해 강한 불만과 실망을 느끼면서도 절망하여 은둔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통찰하는 철학적 지성에 의해 건전하고 올바른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설립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Politeia) 및 『법률』(Nomoi)의 2대 저술을 집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가』는 그가 40세 전후 때에 쓴 것으로 보이며 소크라테스의 학설을 저술하는 것에 노력한 초기의 『대화 편』과는 달리 철학적 성숙의 단계에 도달함으로써 나타난 사색의 결과였다. 그는 이 대화편에서 최선의 이상적 국가형태를 그려내고자 하였다. 다만 그는 제멋대로 공상적으로 행복이 충만한 사회 상태를 구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도시국가의 현실적 사회적 제조건에 부합하는 국가의 구조 및 형태가 무엇인가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국가의 발생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의 사회적 분업이라고 한다. 즉, 인간의 생명 및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 의복, 주거, 기타 물자의 공급은 이들 물품을 생산하는 농공업자 및 그 교환을 중개하는 상인의 존재에 의해 가능한 것이며, 바로 이들이 형성하는 사회적 결합이 국가의 원시적 형태라는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간소한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연적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직업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국가영토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해지면서 전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플라톤에 의하면 국가 존재의 목적 및 사명은 정의의 실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정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최선의 국가란 정의의 덕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구조와 내용을 갖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정의는 한편으로는 개인에 의해 실현되는 덕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해 실현되는 덕이지만 그 본질은 종합적인 덕이어야 한다. 인간의 영혼은 이성, 의지, 감성의 3부분으로 성립되어 있고, 이들이 각각 특유의 기능을 충분히 영위함으로써 이성의 덕으로서의 지혜, 의지의 덕으로서의 용기, 감성의 덕으로서의 절제가 실현된다. 그리고 복종의 원리인 의지 및 감성이 지배의 원리인 이성에 복종함으로써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질 때 영혼의 정의가 실현된다.

개개인은 그들이 갖고 있는 덕의 종류가 제각기 다르며 개인마다 특징적인 덕에 따라서 그의 지위, 역할이 달라진다. 따라서 국가를 형성하는 시민의 제계급이 각각 자기의 본분을 지켜 타인의 본분을 침해하는 일 없이 자기 특유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함으로써 전체적 통일이 달성될 때 국가적 정의가 실현된다.

부연하자면 진정한 국가에 있어서는 통치를 주관하는 위정자계급, 법을 위반하여 질서를 해치는 시민들로부터는 물론 외적으로부터도 국가를 방어하는 수호자계급, 농업, 공업, 상업 등에 종사하는 생산자계급의 3자가 각자의 특유의 직능을 완벽한 방법으로 구현함으로써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이 발휘됨과 동시에 국가에 있어서 이성을 대표하는 위정자계급의 통치에 다른 2계급이 충실히 복종함으로써 3계급이 조화있고 질서 있는 전체를 형성하여 국가전체의 덕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즉 이 3계급은 일신상의 목적을 위해서 일해 서는 안되고, 진리와 선의 실현, 다시 말해서 정의가 넘치는 이상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



전통있는 귀족의 가문에서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퇴폐기의 민주정치의 폐해를 상세히 경험한 플라톤은 자연히 귀족주의적 정치사상을 가졌지만, 소크라테스에게 감화를 받아 인간의 실천적 생활에 있어서의 이성의 작용에 절대적인 신뢰를 둔 합리주의적 견해를 고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이상국가에 대한 그의 사상을 더욱 강화시켰다. 철학자가 군주가 되거나 또는 군주가 철학자의 정신과 힘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참으로 생명력있는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상이 이상국가에 관한 플라톤의 구상이다.

그에 의하면 이상국가에 있어서 통치자는 그의 탁월한 이성의 힘에 의해 무엇이 국가 전국민의 이익에 적합한가를 착오없이 인식하고 이것에 근거해 입법하고 또 그 법의 집행을 감시함으로써 다른 2계급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통치자는 수호자의 계급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경륜이 깊은 사람들이 선택되며, 그들은 선의 이데아(idea)의 직관에 근거해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국가의 전생활을 지배해야 할 사명을 갖게 된다. 또 수호자의 계급에 속하여야 할 사람들은 대외적으로는 용감히 외적과 싸워서 국민을 수호하고, 대내적으로는 시민들 사이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통치자 및 수호자에 부과된 고귀한 사명과 의무에 대응해서 이들 두 계급의 사람들은 생산자계급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것이 요청된다. 즉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유재산제도 및 가족제도하에서 생활하게끔 하고 또 정치생활에의 참가로부터 제외되는 것에 반해 지배계급의 사유재산제도 및 가족제도는 부정되고 그 대신 그들은 하나의 대가족을 형성하고 동일한 가옥에 살면서 공동으로 식사를 한다. 그들은 1년간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급여를 받지만 그 생활은 극히 검소하여야 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각 개인은 선천적으로 소질, 능력이 다르며 우수한 사람은 통치자가 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우수한 소질, 능력을 가진 자는 수호자이어야 하며, 그 외의 자는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해서 남녀간에는 본질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는 동등하게 수호자 또는 통치자가 될 수 있다.

각 개인의 선천적 소질, 능력에 의해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호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우수하지 않으면 수호자로 될 수 없고 생산자의 자녀 중에서 우수한 자는 수호자로 선택되어야 한다. 지배계급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족제도가 부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부부 및 부자의 관계는 인정되지 않고 남녀의 성관계는 통제자의 통제 하에 행해지고 아이의 양육은 공공시설에 위탁된다. 이것은 지배 계급으로 하여금 재산이나 가족을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 뇌물수수, 연고자 등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플라톤이 이상국가의 귀족계급은 재산을 사유하지 않고, 여자와 아이를 공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이것에 의해 통치자가 완전히 사리사욕에서 해방되어 반드시 공공정신에 의거해서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유아 때부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데, 플라톤은 아이가 세 살이 될 때부터 시작되는 교육에 대해 세밀히 기술하고 있다.

『국가』에 묘사된 이상국가의 모습은 그 실현의 가능성 여부의 문제를 떠나서 인간의 사회생활의 최고의 이상적 형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플라톤은 그의 만년에도 확신하고 있었지만, 『국가』를 집필하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한 후 이상적 완전성으로부터는 멀어졌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차선의 이상국가의 모습을 만년의 저술 『법률』에 전개했다. 『법률』에서는 현실 국가에 있어서 입법을 담당하는 사람을 위해 유익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고, 여러 종류의 사회제도에 관한 논술이 충분히 다루어져 있다.



이 대화편은 노령기에 접어든 그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썼다고 추측되고 있지만, 항상 그는 그리스의 사회 및 문화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체제가 나타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국가』를 저술할 때와는 다른 태도로 『법률』을 저술했다.

『법률』의 서두에서 플라톤은 국가에서 입법자가 지켜야 할 진실한 사명은, 예를 들어 스파르타 등의 경우와 같이 특수한 덕의 하나인 용기의 육성만을 목표로 국민을 지도하는 데 있지 않고, 모든 덕을 종합적으로 육성 하는 것만이 입법자가 취할 길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절제의 덕이 국민생활에 있어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역설하고, 최선의 이상국가에 있어서의 정의의 덕에 해당하는 중요성을 전례의 덕으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차선의 이상국가의 모습을 구상하고 있다. 이상국가에서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절대적 분화는 행해지지 않으며, 양자 사이에는 사회적 정치적 지위의 근본적 차이를 찾아 볼 수 없다.

이 국가는 바다로부터 상당히 격리된 지역에 건설되고 외부와의 경제적 유통으로부터 차단된 자급적 농업국 가이어야 하며, 상업주의 및 제국주의의 영향 때문에 국민의 건전한 정신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최선의 이 상국가에서는 "벗들이 모든 물건을 공유한다"라는 옛말이 실현되고 지배 계급 전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동고동락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상태의 실현을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차선의 이상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토지의 경작도 개별적으로 행해지지만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물건이 동시에 국가에 도 귀속되며, 사유권은 공공을 위해 설정된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 국가의 인구수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인구의 중간인 5,040명으로 한정된다. 전국민은 12부족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전영역에 분류된 각 시민에게는 균등한 토지의 소유권이 주어진다. 그 방법으로는 자기가 속한 구역의 내부에서 소유지의 일부분은 중앙의 시가지 부근에, 다른 일부는 국경 부근에 위치하게끔 할당되고 각자의 소유지는 지질이 좋은 것은 좁고, 나쁜 것은 넓게 책정한다. 시민은 부동산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액수까지의 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것을 초과하는 동산은 국유화되며 모든 시민의 재산은 등록된다.

인구의 규모는 증감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시민이 자녀가 없을 때에는 양자가 허용되며 인구유 지상 산아제한이 행해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식민지의 개척이 계획되어야 한다.

시민 및 그 가족 으로 구성된 시민계급 외에 농노 및 외국인의 존재가 인정된다. 시민은 공공적, 정치적 직능에 종사하여야 하며, 간소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건전하고 행복한 생애를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지위에 있게 된다. 시민은 그 소유지를 자신이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농노로 하여금 경작케 한다. 농노는 시민으로부터 경작지의 점유 및 이 용을 허락받고 생산물의 일부분을 지대로서 지주에게 납부한다. 상공업은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허용된 외국 인들에 의해 영위되며, 그들은 12 지역에 나누어 거주한다.

농업생산물과 공업생산물과의 교역은 외국인에 의해 영위되지만 그 거래는 공개 시장에서 행해지고 국가는 엄격하게 이를 감독한다. 시민은 그의 소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팔아서 공업 생산품을 살 수는 있으나 자신이 상업에 종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 은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외국 무역은 완전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치품의 수입이나 생활 필수품의 수출은 금지된다.

이 나라에서 여자는 남자와 평등한 교육을 받고 또 공동식사의 제도 등을 통해 가능한 한 공공생활에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가정생활의 감시 및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공무원으로 취업이 금지된다. 가족제도가 인정되며 일부일처의 혼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적당한 배우



자의 선택이 가능하게끔 국가는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결혼 후 10년간은 여성공무원이 계속 도덕적 및 우생학적 견지에서 부부관계를 감시하고 지도한다.

최선의 이상국가에서는 철학자에 의한 통치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법률』에 서술된 차선의 이상국가는 법에 입각해 통치가 시행되는 국가, 다시 말해서 법치국가를 근본으로 하였다. 이 국가의 주요 권능은 집정원 의원, 호법관, 군사령관 및 지방공무원의 선임 외에 국사범의 재판, 법률의 변경에 대한 심의, 외국인의 장기거주의 허가 등을 들 수 있다.

집정원은 12부로 구분되어 각 부가 매월 교대로 정부를 주관하고 민회의 정기 및 임시의 회의를 소집하며 사회를 담당한다. 호법관은 민회에서 50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20년으로 법의 준수를 감시하고 재판을 주관한다. 이상 요약한 것과 같이 국가의 이상적 형태에 관한 플라톤의 사상은 그리스 사회에 대해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지만, 로마 이후의 사회사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후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유토피아 사상은 플라톤의 『국가』를 모델로 해서 쓴 것이 매우 많다.

그리스 올림픽,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the first ancient Olympic Games can be traced back to 776 BC. They were dedicated to the Olympian gods and were staged on the ancient plains of Olympia. They continued for nearly 12 centuries, until Emperor Theodosius decreed in 393 A.D. that all such "pagan cults" be banned.